

Faulkner와 機械化 社會— 個와 組織의 相剋과 和解

田 浩 鍾

〈東國大 英文科〉

포오크너와 남부의 결합은 남부적 地緣이 그 근거가 되고 있으며, 남부의 토지(the land)에 內在하는 本有的인 가치가 남부 고유의 윤리관으로 크게 부각되고 있다. 그러한 가치관은 기계문명을 배경으로한 북부의 거대한 산업기구에 직면할 때, 결정적인 질적 변화를 겪게 된다.

따라서 포오크너의 세계에는 남부의 전통적인 가치관과 남부에 침입한 반전통적〈현대성〉이 끊임없이 대립, 교착을 이루고 있으며, 이 경우 토지는 냉혹한 문명권으로부터의 탈출 수단이 아니고 오히려 현대의 기계화 사회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형식의 기초가 된다. 그러기 때문에 Dale G. Bredend도 “There evolves in his work a philosophy or a concept of land, its ownership and its fundamental character that is brilliant and humanitarian in its vastness of scope and its depth of understanding.”¹⁾라고 말하며 포오크너의 〈토지의 수사학〉을 중시하고 있는 것이다.

Yoknapatawpha年代記가 시사하는 이른바 남부의 〈황금 시대〉라는 것도 실상은 토지와 의 共生感을 누리며 토지의 미덕에 적극 부합할 수 있었던 시기를 말하며, 이 시기는 대체로 Jefferson의 역사상, 초기의 50년 간에 해당한다. Colonel Sartoris, Major de Spain, Sam Fathers의 정신 풍토로 집약되는 이 시기에는 황야의 존재 양식에 따라 토지와 인간이 긴밀한 親和關係를 유지할 수 있었다. 이때에 인간은 혼자서는 미칠 수 없었던 가치를 토지의 테두리 안에서 터득할 수 있었다. 기실 포오크너의 노벨상 수상 연설에 제시된 결양, 긍지, 용기, 사랑, 인내와 같은 미덕도 토지와 인간과의 본연적인 상관 관계에서 촉발된 가치관이다.

황금 시대가 지나고 토지 매매, 노예 소유, 물질주의 등의 도입으로 인하여 설혹 토지가 오욕으로 물들게 된다 해도 토지 자체의 시원적인 가치는 조금도 손상되지 않는다.

1) Dale G. Bredend, “William Faulkner and the Land,” in *Bear, Man, and God: Seven Approaches to William Faulkner's The Bear*, ed. Francis L. Utley, Lynn Z. Bloom, and Arthur F. Kinney (New York: Random House, 1964), p. 273.

They believed that land did not belong to people but that people belonged to land and that the earth would permit them to live on and out of it and use it only so long as they behaved and that if they did not behave right, it would shake them off just like a dog getting rid of fleas.²⁾

이렇듯 포오크너는 토지에 내재하는 윤리관을 강조하고 있으니 만큼 기계화 사회에 대한 그의 반응은 토지의 황금 시대에 대한 향수와 기계 문명에 대한 분노로 나타난다. 1830년 대에는 자기 집 문간에서 곰 사냥을 할 수 있으리 만큼 토지와 인간과의 유대는 긴밀했으나 1883년에 “The Bear”의 Ike McCaslin은 사냥터까지 30마일을 가야만 했으며, 1840년에 와서는 황야는 더욱 좁아들어 “Delta Autumn”에서 Ike는 200마일은 달리고서야 암사슴 한 마리를 잡는 것이 고작이었다. 자연과 인간과의 균형과 화합이 이루어 졌던 시기에는 사냥은 헤로이즘의 하나의 의식이며 상징이었다. 그러한 분위기를 탁월하게 체현한 Major de Spain이나 Sam Fathers의 경우 헤로이즘은 일상적인 생활 조건이 되고 있다.

...hunters, with the will and hardihood to endure and the humility and skill to survive, and the dogs and the bear and deer juxtaposed and relieved against it, ordered and compelled by and within the wilderness in the ancient and unremitting contest according to the ancient and immitigable rules which voided all regrets and brooked no quarter;—the best game of all, the best of all breathing and forever the best of all listening.³⁾

그러나 Yoknapatawpha의 황금 시대가 끝나고 자연과 인간과의 균형이 깨져가고 있을 때 가치의 역전의 계기가 될 수 있는 두 가지 유형의 특이한 헤로이즘이 나타난다. Ike McCaslin은 늙은 곰 Old Ben의 살생에 관여한 다음 당연한 권리이며 의무인 토지와 가옥의 상속을 포기할 수 있는 자세가 된다. 그가 숲의 철학에서 자연을 지배하는 불변의 법칙을 터득했고, 또한 선조의 罪業으로 남부의 토지가 무참히 유린당한 사실을 자각한 때의 일이었다. 한편 *The Unvanquished*의 Bayard Sartoris는 Lynn Levins의 말을 빌리면 “The title of “The Sartoris” obligates Bayard to act in accordance with the family’s code and demands of him that he redress his father’s murder by slaying Redmond”⁴⁾와 같은 입장에 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끝내 전통적인 복수 방식을 거부한다. 이 양자의 행위에 나타난 윤리적 자세는 분명히 황금 시대를 특징짓는 이상과 전통성에 위배되는 것이지만, 변화하는 사회에 적극적으로 적응을 시도하는 새로운 윤리적 자세이다.

그것은 또한 전통적 헤로이즘의 가치 전환을 의미하며 그러한 가치 전환이 황금 시절이 끝날 무렵에 나타났다는 사실은 증시되어야 한다. 1830년대만 해도 그러한 轉移된 헤로이

2) William Faulkner, *The Unvanquished*(Vintage Books, 1966), p. 54.

3) William Faulkner, *Go Down, Moses*(Vintage Books, 1973), pp. 191~2.

4) Lynn G. Levins, *Faulkner’s Heroic Design*(Athens: The University of Georgia Press, 1976), p. 127.

즘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전혀 무의미하겠기 때문이다. 구 남부(Old South)의 기사도적 로맨티시즘이 급변하는 사회에 지탱할 수 없으며 포오크너는 Bayard의 폭력 부정의 모티프를 통하여 전통적 헤로이즘의 붕괴와 그 헤로이즘의 정신면에서의 유보를 드러내고 있다.

세기가 바뀌자 Yoknapatawpha의 명문들은 쇠퇴 일로를 걷게 되고 가족구조의 유대를 가능케 했던 전통적 윤리관은 새로운 사회의 도래와 더불어 그 의미를 상실하고 만다. 해체된 전통을 고집하는 Bayard Sartoris II, Quentin의 부친, 그리고 Hightower 같은 인물들은 과거의 이미지에만 집착하는 나머지 현실에의 적응을 못하고 그 결과 추억이라고 하는 靜的인 상태 속에 자신들은 고정시킨다. 이 경우 이들이 계승한 전통은 비단 현실에의 적용성을 상실했을 뿐만 아니라, 개인의 사회적 적응에 오히려 부정적으로 작용하여 장애물이 된다. 예컨대, *The Sound and the Fury*의 Quentin의 자살을 불가피하게 한 것도 비단 조잡한 물질주의나 Caddy의 애인의 부도덕 때문만은 아니다. 그가 계승한 전통이 현실앞에서 무력한 데에도 그 이유가 있다.

Bayard III가 처해 있는 상황도 이와 비슷하다. 그도 자기가 계승한 전통이 장애가 되어 사회적 적응이 불가능하게 된다. 그가 난폭하게 차를 운전한 탓으로 할아버지가 심장마비를 일으켜 사망한 후 그는 MacCallum의 가족이 사는 숲 속으로 들어가 그들과 사냥을 하며 지낸다. 말하자면 아직도 <자연의 풍요성>을 간직한 MacCallum 가족을 매체로 하여 토지와와의 관계를 맺게 된다. 그러나 토지는 적극적이며, 긍정적인 가치에 의거해서 작용하는 것이지 결코 부정적인 도피처로서 소용되는 것은 아니다.

He turned on to his back again; the shucks whispered beneath him with dry derision. The house was full of noises; to his sharpened senses the silence was myriad: the dry agony of wood in the black frost; the ticking of shucks as he breathed; the very atmosphere itself like slush ice in the vise of the cold, oppressing his lungs.⁵⁾

그러나 Quentin이나 Bayard의 불가피한 자살은 포오크너의 헤로이즘에 대한 신념의 약화를 뜻하는 것이 아니고 진정한 헤로이즘이 성립되려면 현실 사회에의 적응에 근거한 가치 전환이 전제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1918년 이후의 Yoknapatawpha계열 소설의 인물들은 물질주의나 획일주의 같은 기계화 사회의 부정적 양상에 대하여 민감한 반응을 한다. 따라서 이들의 사회적 적응에 대한 문제도 Snopeses, Jason Compson, Popeye, Percy Grimm 같은 인물들의 수용을 가능케 한 기계화 사회에 대한 적응의 문제로 집약된다. 도시, 포오크너에 있어서는 획일적 문명 기구란 인간과 토지의 근원적인 괴리에서 비롯한다. 토지의 死滅을 가져온 직접적인 요인은 기계 자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인간을 토지의 미덕으로부터 차단시킨 것은 기계화 과정에

5) William Faulkner, *Sartoris*(Signet, 1953), p. 272.

서 유발된 획일주의이다. 그렇기 때문에 포오크너의 작품에는 기계 자체가 독자적인 존재 양식으로 부각되지 않고, 다만 하나의 상징으로서 갖가지 문명 기구와 제도 속에 가려져 있는 것이다.

기계화 사회의 획일주의에 적극적으로 同化를 시도하는 자는 Jason Compson과 같은 인물이다. 도시 Jason에겐 윤리 의식이 없다. 또한 그에게 사고 작용조차도 결여되어 있으며 다만 순간적으로 번덕스럽고 경련적인 반응을 나타낼 뿐이다. 그가 영위하는 생활에는 과거나 미래가 없다. 그의 유일한 관심사는 금전적 이해관계나 허황된 지배욕이다. 근대 사회인의 전형이라 할 수 있는 이 현실주의자는 항상 피해 의식에 사로 잡혀 있다. 그의 냉소적이며 빈정대는 성품은 다음과 같은 구절에서도 알 수 있다.

Once a bitch always a bitch, what I say. I says you're lucky if her playing out of school is all that worries you. I says she ought to be down there in that kitchen right now, instead of up there in her room, gobbing paint on her face and waiting for six niggers that cant even stand up out of a chair unless they've got a pan full of bread and meat to balance them, to fix breakfast for her.⁶⁾

그는 근대 기계문명에 수반하는 모든 악덕의 상징이지만 동시에 그러한 악덕의 희생자이다. 다시 말해서 Jason은 기계화 사회의 어설픈 회화라 할 수 있다.

Jason이 구세계의 테두리에서 변화하는 사회 상황에 적응을 시도한 인물이라면 Jason 이후 포오크너의 관점은 생육 과정에서 기계화 사회에 이미 오염된 인물들에게 쏠리고 있다. 그러한 유형의 전형적인 인물이 현대 악의 상징이라 할 수 있는 Popeye이다. Malcolm Cowley는 *The Portable William Faulkner*의 서문에서 Popeye에 대하여

He is always described in mechanical terms: his eyes "looked like rubber knobs"; his face just went awry, like the face of a wax doll set too near a hot fire and forgotten"; his tight suit and stiff hat were "all angles, like a modernistic lampshade"; and in general he had "that vicious depthless quality of stamped tin."⁷⁾

라고 말하며, 그의 비인간적 분위기를 강조하고 있다. Popeye의 성격상의 불균형은 Old Frenchman Place의 주민들의 토지에 뿌리박은 생명력과 대극을 이루며 그는 항상 자연의 가치관과 상극 관계에 있다. 울빼미의 울음 소리에든 그는 소스라쳐 놀라 친구를 움켜잡고 의지하는가 하면, 밭 뒤꼍치에서 쟁쟁대는 개를 자동권총으로 그 자리에서 죽사케 한다. Popeye의 그러한 무감각은 토지로부터 차단된 비인간적 <현대성>을 숙명처럼 드러낸다.

*Sanctuary*에 있어서 액션의 핵심은 Popeye와 Temple Drake의 상관 관계에서 찾아 볼수

6) William Faulkner, *The Sound and the Fury*(Penguin Books, 1976), p.163.

7) *The Portable Faulkner*, ed. Malcolm Cowley(The Viking Press, 1946), p.15.

있다. 명문 출신인 그녀는 성불능자인 Popeye와 대립 관계를 이루어 이 작품에 나타난 획일주의적 불모성을 표상한다. Temple Drake가 1929년 까지는 이미 퇴폐되고 무력해진 남부 전통의 “temple”을 뜻한다면 Temple Drake의 능욕에 의한 침해는 상징적인 면에서는 철도와 Snopeses의 침투로 시작된 토지의 침해와 결국 같은 뜻이 된다. 기계화의 침투에 토지가 무력한 것처럼, Temple도 Popeye 앞에서는 무방비 상태일 뿐이다. 그녀는 자신을 방어할 의사조차 없으며 오히려 그녀는 일종의 의식의 분위기를 풍기며 스스로의 침해를 기다린다.

Temple goes through a self-conscious ritual of preparing for her victimization and self-sacrifice. She combs her hair, renews her makeup, glances at her watch repeatedly, and lies down to wait, “her hands crossed on her breast and her legs straight and close and decorous, like an effigy on an ancient tomb.”⁸⁾

어느 의미로는 Temple의 침해는 불가피한 희생이다. 이미 퇴화된 구질서를 부정한다는 것은 새 질서에 대한 굴복을 뜻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문제는 Temple이 그 새 질서 속에서도 안주할 수 없을 뿐더러 하등의 긍정적인 가치의 가능성을 찾지 못한 점에 있다. 그녀의 initiation은 결국 한낱 조롱거리가 되고 Red에서 찾은 그녀의 사랑조차도 Popeye의 자동 권총에 의하여 무참히도 좌절된다. Popeye가 지배하는 세계에서 Temple이 재생활 수 있는 공간을 찾지 못한 것은 매우 중요한 사실이다. 윤리의 공백 지대에서 변화하는 사회에 대한 적응이 좌절될 때 무가치성이 난무하게 되며 이미 고갈되어 버린 토지의 미덕은 쇠도하는 물질주의나 획일주의에 직면할 때 적응의 한계를 드러낸다.

*Light in August*의 Joe Christmas는 Popeye의 부정적인 면과 애매하나마 일종의 헤로이즘을 지향하는 긍정적인 면을 동시에 나타내고 있다. 그러한 過渡的 二面性의 교착이 이 소설에 긴장감을 주고 있다. 따라서 *Light in August*는 사회적 적응의 새로운 가능성을 시사하는 이정표적 작품이라 할 수 있다. 주요 인물들의 대부분이 소외라는 극한 상황에서 연대 의식의 필요성을 인식하며 공동체로서의 복귀에 대하여 긍정적인 반응을 나타낸다.

*Light in August*에는 Joe Christmas와 Lena Grove로 각각 대표되는 두개의 상반되는 힘이 끊임없이 작용하고 있으며, “typical dialectic of life and anti-life”가 이 소설의 기초를 이룬다. Joe와 Lena가 각기 가는 길은 서로 엇갈리지만 이들이 투사하는 힘은 서로 교착하며 그들의 영향권에 들어있는 사람들로부터 때때로 예기치 않은 헤로이즘을 유발한다. 현실과 완전히 차단되어 과거 속으로 退行하는 Hightower조차도 Lena의 해산을 돕는 것이 계기가 되어 외부 세계와의 연대성을 자각한다. Carl Benson은 그러한 Hightower의 전

8) Olga W. Vickery, *The Novels of William Faulkner* (Baton Rouge: Louisiana State University Press, 1959), p. 108.

환을 "The wheel is disengaged from the private conscience of Hightower and spins before him carrying on its circumference the faces of the people who have populated the novel."⁹⁾라고 설명한다.

Lena Grove에 나타난 토지의 표상은 Sanctuary의 황무지에 현저하게 결여되어 있는 자연의 가치관이 포오크너의 세계에 다시 작용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때로는 <풍요의 여신>으로 불리워 지는 Lena는 그 생산적 풍요성에 의하여 기계 문명의 해독을 치유할 수 있는 힘을 갖는다. 그러기 때문에 Lena의 표상은 이 소설에 나타난 긍정적 가치관의 근거가 된다. Cleanth Brooks는 "Faulkner uses Lena to confirm an ideal of integrity and wholeness in the light of which the alienated characters are judged."¹⁰⁾라고까지 주장한다.

Lena와 대극을 이루며 이 소설에서 크게 작용하는 또 하나의 힘인 Joe Christmas는 분명히 과도적 정신 상태를 가늠하는 핵심적 인물이다. 그러나 Christmas를 적절히 다룬다는 것은 확실히 어려운 일로 생각된다. 포오크너가 사회학적, 종교적, 그리고 프로이트의 상징을 엄청나게 이 인물에 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서 Floyd C. Watkins의 평은 매우 시사적이다.

Faulkner does intrude more, does use abstractions and generalizations more extensively and frequently. But at the same time the sonorous vocabulary of *Light in August* is effective. It is almost as if Faulkner transcends the limitations of his method as a truly great or prophetic writer may transcend the limitations of his use of the pathetic fallacy.¹¹⁾

Christmas의 투쟁은 본질적으로 그가 처해있는 사회와 확실한 동질성을 이룰 수 있도록 자기의 identity를 추구하는 면에서 진행된다. 그러나 이 추구에 수반하는 수많은 상징적 복합상은 하나의 인물로서의 Christmas의 실체를 약화시키고 그 결과 Christmas는 여러 상징의 연계점으로 환원된다. 그가 살아 있는 하나의 개체로서 현출하기 위해서는 그를 에워싸고 있는 사회 기구의 경화된 사고 방식의 늪에서 벗어나야만 한다. Alfred Kazin도 말하고 있듯이, "Christmas is seen as what others say about him, he is only a thought in other people's minds. More than this, he is looked at always from distance, as if he were not quite human, which in many ways he is not."¹²⁾ 그 한 가지 이유는 포오크너 자신이, Snopes전통의 계승자인 Lucas Burch와 Popeye의 후계자인 Percy Grimm을 수

9) Carl Benson, "Thematic Design in *Light in August*," in *Twentieth Century Interpretations of Light in August*, ed. David L. Minter (Englewood Cliffs: Prentice-Hall, 1969), p. 107.

10) Cleanth Brooks, *The Hidden God*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1963), p. 40.

11) Floyd C. Watkins, *The Flesh and the Word* (Nashville: Vanderbilt University Press, 1971), p. 214.

12) Frederick J. Hoffman and Olga W. Vickery, ed., *William Faulkner: Three Decades of Criticism* (New York: Harcourt, Brace & World, 1960), p. 251.

용하는 세계 속에 Christmas의 identity를 자신있게 설정하는 데 미흡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Christmas가 자기 세계의 뒤안 길을 방황하면서 때로는 사회와의 동질성을 찾기도 하고, 때로는 이를 부인하면서 끊임없이 자기 확인을 거듭하고 있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Christmas는 Joanna Burden을 살해하고 나서 숲 속을 혼자 걷는다. 그는 숲 속을 걷는 동안 <토지>와의 화합을 재확인함으로써 자기가 평생을 두고 거부했던 자신의 한 부분, 즉 사실이건 상상이건 자기의 체내에 흐르고 있다고 생각되는 흑인의 피를 용인한다. 드디어 그는 지금껏 그를 괴롭혔던 자신으로부터의 도피라는 커다란 부담에서 벗어나게 된다.

His direction is straight as a surveyor's line, disregarding hill and valley and bog. Yet he is not hurrying. He is like a man who knows where he is and where he wants to go and how much time to the exact minute he has to get there in. It is as though he desires to see his native earth in all its phases for the first or the last time.¹³⁾

그러나 Christmas가 찾은 자유는 그를 마치 그물처럼 에워싼 과거라고 하는 숙명적인 魔物 때문에 제한을 받기 마련이다. 그가 찾은 자기 동일성은 자기 소의로부터 보전하기 위하여 그는 죽지 않으면 안된다. 그는 죽음으로써 자기 통일성의 타당성과 중국적 平靜을 이룩하는 바, 이 경지를 포오크너는 apotheosis라고 한다.

He just lay there, with his eyes open and empty of everything save consciousness, and with something, a shadow, about his mouth. For a long moment he looked up at them with peaceful and unfathomable and unbearable eyes. Then his face, body, all, seemed to collapse, to fall in upon itself, and from out the slashed garments about his hips and loins the pent blood seemed to rush like a released breath. It seemed to rush out of his pale body like the rush of sparks from a rising rocket; upon that black blast the man seemed to rise soaring into their memories forever and ever. They are not to lose it, in whatever peaceful valleys, beside whatever placid and reassuring streams of old age, in the mirroring faces of whatever children they will contemplate old disasters and newer hopes. It will be there, musing, quiet, steadfast, not fading and not particularly threatening, but of itself alone serene, of itself alone triumphant.¹⁴⁾

Christmas의 피의 apotheosis는 어느 의미에서는 Yoknapatawpha 연대기에서 포오크너가 도달한 가치 전환의 과도적 순간이라 할 수 있다. 구체적인 작중 인물의 차원에서 생각할 때 이 사건의 의미는 여러 상징의 복합적 교착이 오히려 장애가 되어 분명치 않지만, 추상적 가치 그것 만으로도 대단한 성공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Christmas의 사회적 긍정은 구조적으로는 정당화될 수 없는 *deus ex machina*이다. Lena의 이 작품에 있어서의 성

13) William Faulkner, *Light in August*(New York: Random House, 1969), pp.250~251.

14) William Faulkner, *Light in August*, p.346.

적도 기실 하나의 상징의 연속체에 불과하다. 그러나 이들 인물로서 포상되는 두 개의 힘이 결합하여 하나의 긍정적 공간이 설정되고, 그 테두리 안에서만이라도 또다시 헤로이즘의 가능성이 열릴 수 있다는 사실은 매우 중요하다. *Sanctuary*에 나타난 부정적 비전과 공포감이 한낱 상징적인 카타르시스로써 극복되었다고는 할 수 없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러한 황량한 부정적 분위기로부터 적극적인 긍정의 가능성의 계기를 *Light in August*가 마련했다는 점이다.

적극적인 긍정의 가능성을 체험한 첫 번째 인물은 Christmas를 구하려 했고, 또한 Lena와의 사랑에 성공하게 될 Byron Bunch라 할 수 있다. 그는 Lucas Burch와 Christmas가 일하는 제제소에 다니지만, 자기 동료들에게는 항상 “낯선” 사람이다. 그러자 Lena가 돌연 그의 생활에 뛰어들어 그를 수동적 소극성으로부터 긍정의 풍요로운 소용돌이로 이끌어들이다. 결국 Byron은 Lena와 Lena가 포상하는 제제를 그녀의 유혹자인 Lucas의 물질적 卑俗性으로부터 뿐만 아니라, Percy Grimm의 사회적 타락성으로부터 보호한다. 이것은 “낯선” 사람인 Byron의 공동체에로의 복귀를 뜻한다. 다시 말해서 연대 의식의 필요성을 인식한 것이다. Lena는 그녀의 본연적인 순수성 때문에 보호할 실제상의 필요는 없다. 그러나 Lena에 대한 Byron의 사랑은 그가 지금껏 무시하고자 해 온 현실에 결정적으로 관여하는 계기가 된다. Hightower는 “I can read you”라 하며 다음과 같이 말한다.

You will tell me that you have just learned love; I will tell you that you have just learned hope. That's all; hope. The object does not matter, not to the hope, not even to you. There is but one end to this, to the road that you are taking: sin or marriage. And you would refuse the sin. That's it, God forgive me.¹⁵⁾

조부의 죽음의 신비스런 순간에 “희망”을 상실했던 Hightower에게는 Byron의 그러한 관여는, 현실 도피라는 안전성에 대한 침해를 의미한다. 그러나 Byron과 그리고 포오크너에게 있어서는 희망 그 자체가 공동체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그러기에 John L. Longley, Jr.도 다음과 같이 주장하는 것이다.

The graph of Byron's effort at heroism(though comic) traces the Christian paradox of the Fortunate Fall: Byron will leave his cloistered Eden to plunge into the active life—to know sin and run the risk of damnation in order to be the protector of Lena and her child.¹⁶⁾

*Pylon*에서 포오크너는 *Light in August*의 복합적 상징과 추상으로 부터 벗어나, 인간과 기계사이의 특이한 상호관련을 다룬다. 기계의 순수성과 기능미에 대한 미묘한 매혹을 느끼게 하는 이 작품에서는 기계라고 하는 특수한 상황 내지 조건에서의 적응의 가능성에 대

15) William Faulkner, *Light in August*, p. 234.

16) John L. Longley, Jr., *The Tragic Mask*(Chapel Hill: The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Press, 1963), p. 51.

한 포오크너의 깊은 관심을 본다. 이 관심은 논리적으로는 Byron Bunch의 현실 세계에 대한 긍정적인 관여의 소산이다. 그러나 *Pylon*에서는 적응의 촉진제가 되는 것은 기계, 즉 비행기이며 이것은 분명히 Lena가 표상하는 토지의 촉진제와는 거리가 멀다. 다시 말해서 이는 새로운 유형의 헤로이즘의 가능성에 대한 모색이다.

*Pylon*은 세 인물, 즉 두 남자와 그들의 共有하는 한 여자의 이야기이다. 이 세 인물은 그들의 존재 양식의 主軸인 비행기의 영역 내에서 전적으로 생을 영위한다. Laverne은 파라슈트 점퍼인 Jack Holmes와 경기용 비행기 조종사인 Roger Shumann과 살면서 그들 중의 한 사람의 아이를 낳지만, 그 아이의 아버지가 정확히 누구인지는 밝혀지지 않는다. 그들은 이른바 “the new and legless kind”이며 그들의 생활은 기계의 기능세계 내에 한정된다.

...a machine expensive, complex, delicate and intrinsically useless, created for some obscure psychic need of the species if not the race, from the virgin resources of a continent, to be the individual muscles bones and flesh of a new and legless kind.¹⁷⁾

이 소설에는 기계의 비전에서 연유하는 폭발적 환희와 동시에 비극의 뉴앙스가 기조를 이룬다. 이 소설의 액션은 New Valois의 Mardi Gras에서 기계적 균형미의 전형이라 할 수 있는 100만불 짜리 비행장으로 옮겨간다. 이 소설의 장면과 액션은 서로 결합하여 새로운 reality를 드러내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액션에 지나치게 중점을 두는 나머지 장면은 고립화되는 경향이 있고, 전반적인 액션은 기계라는 외부적인 힘과 관련될 때만이 비로소 의미를 갖는다. 이 비행사 일가족의 기계화 생활에 애착을 갖고, 이를 시종 지켜보는 익명의 기자에겐 이들의 생활이 기계화 사회의 하나의 극점처럼 비친다.

*Pylon*에 나타나는 비인간성의 뉴앙스는 이 소설의 구조에서도 암시된다. 이것은 비단 액션의 동기가 불충분하기 때문에 기계적이고, 비인간적으로 보이는 것만은 아니다. 이 작품에 나타난 비인간성, 보다 적절히 말해서 탈인간성은 비행사 일가족의 행동의 근거가 되는 가치관에서 연유한다. 실상 “They aint human like us.”와 같은 분위기가 이 소설에 스며들어있다. Edmond Volpe도 “Dedication to the machine creates and unites the group. Human relationships are subservient to relationships created by the necessity of servicing the machine.”¹⁸⁾라고 말한다. 세 사람의 비행인은 비행장에서 비행장으로 강풍에 휩쓸리는 나뭇잎처럼 돌아다니는 방랑자들이다.

이상에서 보아왔듯이 *Pylon*은 특정한 기계의 테두리에서 기계화의 세계에 대한 적응 문제를 다루고 있다. 그러나 그러한 적응은 Laverne의 경우, 기계 세계의 일부가 되도록 그

17) William Faulkner, *Pylon*(Signet Book, 1951), p. 54.

18) Edmond L. Volpe, *A Reader's Guide to William Faulkner*(New York: The Noonday Press, 1964), p. 177.

녀의 (출산 능력은 아닐지라도) 女性性까지 거부할 것을 요구하는 바, 그 요구는 종교상의 자기 희생에 해당할 만큼 엄중한 것이다. 그러나 섹스 자체는 대수롭지 않은 순간적인 오락으로 전락한다. 따라서 3인의 비행인에게 Laverne의 아이의 진정한 아버지가 누구든 상관 없다. Laverne의 여성성의 상실을 그녀가 격납고에서 일하는 장면에서도 알 수 있다.

(She works) in dungarees like the rest of them, with her hands full of wrenches and machinery and a gob of cotter keys in her mouth like they tell how women used to do with the pins and needles before General Motors began to make their clothes for them.¹⁹⁾

Laverne에게 있어서도 두 남자들과 마찬가지로 기계가 곧 의식이다. 그들은 기계의 힘이 그들의 존재 양식의 원천임을 만족하게 생각하며, 어떤 의미에서는 그들은 기계의 힘의 연장에 불과하다. 그 결과는 의식이 기계의 힘의 교리 앞에 굴복하는 것이니, 그것은 종교에서 사람이 자아를 버리고 神의 은총에 동화되는 것과 같은 차원이다. 따라서 Shumann은

single-purposed, fatally and grimly without any trace of introversion or any ability to objectivate or ratiocinate, as though like the engine, the machine for which he apparently existed he functioned, moved, only in the vapor of gasoline and the filmslick of oil.²⁰⁾

라고 묘사되어 있다. 기계에의 적응의 조건이 이들에게 가해진 조건만큼이나 그렇게 엄중하다면, 탈인간적이며 기계적인 헤로이즘이 가능할 수도 있다.

Laverne와 Shumann이 그렇게도 헌신적으로 섬기는 기계는 그 자체에 고유한 일종의 儀式을 그들의 생활에 과한다, 이 儀式 때문에 이들이 志向하는 기계의 세계는 Snopes의 물질주의와 Popeye의 비인간성이 가져오는 퇴폐의 세계와는 判異하다. Shumann은 두 번이나 목숨을 거는 비행을 했으며 고장난 비행기를 항로에서 이탈시켜 사람들의 생명을 구출하고 자기희생을 한다. 그러므로 Shumann의 기계화는 Popeye의 기계화의 반대축에 서있는 것이다.

익명의 기자와 마찬가지로 포오크너도 기계에 고유한 순수성과 “우리와 같은 사람이 아닌” 그 사람들에게 매혹당해있는 것 같다. 그러나 그가 기계화에 의한 미래의 세계를 크게 불신하는 것 만은 분명하다. Pylon의 인물들의 인간성 상실은 기계 세계에의 적응을 가능하게 해줄런지 모르나, 그것은 거의 견딜 수 없는 희생을 요구하는 적응이다. 또한 그러한 적응에서 충족감을 얻을 수 있다 해도 그것은 이들 세 사람에게만 국한된 것이며 그들의 아이는 그 충족감으로 인하여 엄청난 댓가를 치루는 것이 분명하다. 결국 그 아이는 Shumann의 부모가 말아서 기르게 되는데 그들은 이 아이가 과연 그들의 손자인지 아닌지를 끝내 모르게 된다.

19) William Faulkner, *Pylon*, p. 29.

20) William Faulkner, *Pylon*, pp. 103~104.

Roger Shumann의 행동이 헤로이즘의 한 형태를 보여 주는 것만은 틀림없다. 그러나 문제는 그것이 인간적 요소가 결여된 헤로이즘이라는 사실인 데 있다. 그것은 어쩌면 진정한 형태의 헤로이즘, 즉, 추상적이고 냉철하며 비인간적 헤로이즘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포오크너는 이 헤로이즘에 동조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Pylon*에서 한 가지 혼란을 가져오는 점은 포오크너가 자기의 주제를 일관성있게 다루고 있지않은 점이다. 공포와 당황과 매혹과 같은 이질적 요소들은 하나의 단일 비전으로 통일될 수 없다. *Pylon*의 중요성은 그 작품이 기계 세계에 하나의 적응의 형태를 제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 적응의 형태는 적어도 어떤 적극적 가치를 지향하느니 만큼 최소한 허무주의는 피할 수 있다.

Laverne과 Shumann의 세계는 미래 지향적인 세계이다. 현대적 상황을 다룬 다음 소설 *The Wild Palms*에서 포오크너는 물질주의와 획일주의가 지배하는 현실 사회로 돌아온다. 이 소설은 "The Wild Palms"와 "The Old Man"의 두 중편이 *The Wild Palms*라는 제목의 한 책을 이룬다.

이 작품의 이중 구조에 관하여 포오크너는 "The Wild Palms"가 주류를 이루고 "The Old Man"은 다만 배경의 효과를 겨냥한 것이라고 설명한다.

The story I was trying to tell was the story of Charlotte and Harry Wilbourne. I decided that I needed a contrapuntal quality like music. And so I wrote the other story simply to underline the story of Charlotte and Harry. I wrote the two stories by alternate chapters. I'd write the other just as the musician puts in--puts counterpoint behind the theme that he is working with.²¹⁾

그러나 두 개의 스토리 사이의 연관성의 범위와 중요성은 포오크너 학자들의 최근의 연구 성과에서 밝혀졌으며, 특히 주제면에서 볼 때 개인의 인간적 충동을 저해하는 모든 사회적 세력에 대한 포오크너의 근원적인 반발과 비판이 이 이중 소설의 역설적 대비 관계에 의하여 심화되고 있다.

"The Wild Palms"의 줄거리는 젊은 인턴인 Wilbourne과 기혼녀인 Charlotte와의 사랑 이야기인데 Charlotte는 사랑의 가치는 사랑을 위하여 지불한 희생에 비례한다는 강한 신념으로 사랑의 자유를 추구한다. 또한 그녀는 물질주의나 획일주의는 사람의 가치를 저해하며 사랑의 완전한 보전을 위해서는 이를 억압하는 사회에 반항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Charlotte와 Wilbourne은 그들의 낭만을 위하여 무의미한 사회적 안전을 거부하며, 따라서 그들의 생활의 패턴은 사회적 안전에 대한 격렬한 반항에 바탕을 두고 있다. 얼마 동안은 그들의 사랑은 현실과 차단된 상황에서 영위되었기에 보전이 가능하다. 그러나 이런 상황

21) Frederick L. Gwynn and Joseph L. Blotner, eds., *Faulkner in the University: Class Conferences at the University of Virginia, 1959~1958*(New York: A Vintage Book, 1959), p. 171.

은 오래갈 수가 없다. Charlotte가 시간제로 근무하고 있는 백화점에서 그녀에게 계속 있어 달라고 요청했을 때 그녀는 그 안전의 유혹을 물리치지 않을 수 없다. 그들은 다시 자리를 옮긴다. 그들은 시카고의 겨울의 토굴에서 벗어나 시간도 안전도 존재하지 않은 Utah의 황막한 광산촌으로 도피한다. Wilbourne과 Charlotte가 시도하는 것은 사실상 Quentin이 그의 누이 Caddy와 더불어 시도하고자 한 일과 매우 유사하다. 다시 말해서 그들은 시간이라고 하는 불순물이 미치지 않는 곳에 그들의 관계를 고정시키고자 한다. 그들은 안전이 곧 순응이고 순응은 애정의 적이기 때문에 안전을 거부해야만 한다. “The Wild Palms”은 기계화 사회에 대한 적응 방식을 다룬 일련의 여러 소설들 중에서도 매우 특이한 작품이다. 안전을 거부함으로써, 따라서 사회를 거부함으로써 적응을 시도한다는 것은 결국 불가능한 도피라는 것을 “The Wild Palms”는 시사해 준다. 집단을 벗어나 무한히 個로 향하는 적응 방식은 결국 파멸을 가져온다. 고결화된 아집은 경화된 강박 관념으로 굳어져 버리기 때문이다. 따라서 Wilbourne과 Charlotte의 경우, 안전으로 부터의 도피의 동기가 되는 사랑의 정서적 기반은 어느 사이에 사랑의 추구로부터 사회에 대한 반항을 위한 반항으로 변질된다. 따라서 반항과 도피에 대한 끝없는 필요성 때문에 그들의 애정생활 자체가 규격화되고 만다. Wilbourne이 자기 아이를 유산시키려고 하는 시도에서 우리는 그들의 사랑의 불모성을 보게 되며 사회적 안전의 거부는 인간성의 거부를 초래하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결국 Charlotte는 죽고 Wilbourne은 그들의 사랑에 대한 추억으로 살아가게 된다.

Charlotte의 죽음으로 끝나는 “The Wild Palms”의 부정, 불모, 공허의 분위기와는 대조적으로 “The Old Man”에서는 현대 세계에 있어서의 자연의 가치관의 연계성을 재확인한다. “The Old Man”은 홍수 때문에 물이 불어 강줄기에 세운 하얏은 판자집과 제방을 위협하며 자연의 힘을 과시하는 미시시피강의 이야기이다. 또한 강 한복판에서 개인의 능력의 한계를 넘은 헤로이즘을 발휘하며 강과 더불어 흘러가는 한 죄수의 이야기이기도 하다.

이야기의 내용은 거의 민간 전설과 흡사할 정도로 단순하다. 기차를 강탈하려고 했기 때문에 15년의 형을 선고받은 한 죄수가 1927년의 대 홍수 때 범선에 실려나가 한 입부를 구출하여 데리고 온다. 결국 자의로 감옥에 돌아옴으로써 자유의 기간을 스스로 종결짓지만, 그 동안 이 죄수는 인간과 자연의 균형있는 친화 관계 뿐만 아니라 인간의 헤로이즘을 가늠케 하는 원동력이 무엇인가를 터득한다.

그 죄수는 범선에 실려 바다로 나가는 순간부터 이미 자율적인 인간이 아니고 장엄한 미시시피강에 내재하는 강력한 긍정의 힘을 전달하는 매체라고 할 수 있다. 그가 구출한 여인은 Lena Grove와 마찬가지로 자연의 풍요를 상징하는 인간이다. 그러나 죄수는 그 여인을 두려워 한다. 그녀는 그로 하여금 열차 강도 죄를 범하여 감옥에 가게 한 또 하나 여자를 연상시켰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여인은 여성의 근원을 알 수 없는 악의의 표상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 여인의 부담스런 증압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욕망에도 불구하고 죄수는 윤리에 어긋나는 행위는 전혀 하지 않는다.

He wanted so little. He wanted nothing for himself. He just wanted to get rid of the woman, the belly, and he was trying to do that in the right way, not for himself but for her. He could have put her back into another tree at any time—But he had not done that. He wanted to do it the right way.²²⁾

죄수가 바라는 것은 여인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감옥의 평온한 안식처로 돌아가는 것뿐이다. 그러나 그는 강물을 타고 내려가는 동안에 강이 보여주는 적나라한 자연의 위력과 점점 화합한다. 그의 강을 통한 자연에의 initiation은 *The Bear* 제 4부에서 Ike McCaslin이 말하는 토지를 통한 자연에의 initiation과 상통한다. 죄수가 터득한 자연의 생활 양식은 에덴 동산 추방 이전의 생활 양식이다. 즉 인간이 토지와 그 토지에 서식하는 모든 생물은 물질적 굴레 속에 가뒀놓기 전의 생활이다. 이 경우 인간의 모든 행동은 토지의 본연적 가치의 연장이라 할 수 있다.

죄수가 감옥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현실 생활로부터의 도피를 뜻한다. 그러나 그는 미시시피강에서의 2주일 동안에 인간 존재의 전 영역을 구체적으로 체험한 것이다. 그러한 체험은 Snopes와 Popeye와 Burch같은 인물들이 난무하는 기계화 사회에 있어서도 토지는 인간의 “허약한 기계”로는 정복된 일도 없고, 앞으로도 정복될 수 없으리라는 것을 입증한다. 죄수에게 구현된 긍정과 헤로이즘의 비전은 Byron Bunch의 그것과 흡사하며 동시에 똑같은 한계점을 내포한다. 그러나 “The Old Man”에는 더 희망이 있다. 홍수로 범람한 강은 Lena의 이념적 추상보다도 더 구체적이다. 환언하면 토지와 그리고 토지에 내재하는 가치는 헤로이즘의 원천으로서 아직도 유용한 것이다. “The Old Man”의 긍정은 사회의 한계 밖에서 이루어 지는 만큼 엄격히 말해서 Roger Shumann의 기계적 헤로이즘보다 더 나올 것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The Old Man”에 나타난 희망의 분위기를 부인할 수 없으며 그러한 희망은 비단 죄수 한 개인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누구나 공유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엿보인다.

개인을 토지의 가치관으로부터 차단시킨 획일주의라는 장벽을 뚫기 위해서는 비상한 헤로이즘을 요하게 된다. *Pylon*의 기계적 헤로이즘의 미흡함과, “The Old Man”의 무익한 도피와 *Light in August*의 추상성에도 불구하고 포오크너는 동시대의 어떤 미국 작가보다도 한층, “낯선” 세계에의 적응 문제에 진지하게 대처한 작가이다.

기계화 사회의 하나의 특징이 조직화에 있다면 조직화의 전형은 엄중한 규율과 질서를 표방하는 군인 사회일 것이다. *Fable*은 질서와 권위의 상징인 총사령관과 개인의 자유를

22) William Faulkner, *The Wild Palms*(Vintage Books, 1966), p. 161.

대변하는 하사관과의 대극 관계를 다룬 작품이다. 포오크너는 이 작품에서 주제의 보편성을 강조하기 위하여 작품의 공간을 “인간 정신의 자유의 요람”인 프랑스에 설정하고 있다. 그것은 이 작품의 주제가 Yoknapatawpha에 국한된 단순한 남부 문제가 아닌 보편적인 인간의 문제인 것을 시사한다. 또한 그는 인물들을 단순히 장군이라든지 하사관과 같이 보통 명사로 처리하여 개개인의 이름을 피하고 있으며, 그의 메시지를 추상적인 차원으로 환원하여 진술함으로써 이 작품의 내용이 보편적이고 원형적인 것임을 느끼게 한다. 작중 인물인 장군은 복종을 강요할 수 있는 비 특징적이고, 하사관 역시 강압적인 통치에 항거함으로써 수난을 당하는 비 특징적이다.

하사관은 항구적인 평화와 개인의 존엄성을 위하여 공격 명령을 거부하는데, 장군은 하사관의 의도에 원칙적으로는 동조하지만 질서와 규율의 유지가 절대 필요하며 특히 전시에 있어서는 규율의 파괴는 혼란을 자초한다고 믿는다. 경화된 군인 사회의 안전을 구하는 장군과 인간적 진실을 추구하는 하사관 사이의 대결은 두 사람의 대립된 인간관에서 연유한다.

그러나 그러한 대립은 인간 상황의 항구적 양상이라는 점이 이 작품의 주제적 핵심이 된다. 장군과 하사관이 서로 피를 나누는 부자간이라는 사실이 상반된 요소가 동일체 속에 병존함을 상징하는 것으로 생각되어 이 작품의 모티프를 더욱 돋보이게 한다. 하사관은 비인간화로 치닫는 조직과 질서는 역설적으로 혼돈과 폭력의 원천이 된다고 확신하는 반면에, 장군은 인간의 엄청난 악의 소지와 한계성이 바로 엄격한 규제의 요인이 된다고 주장한다. 포오크너가 불연속적으로 전개하는 개인의 자유와 사회적 강압의 변증법도 실은 그러한 자기 규정과 외부 규정의 끊임없는 교착을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포오크너는 비록 감정적으로는 고통받는 반역의 인물인 하사관에게 동정하지만 지적으로는 하사관과 장군의 주장을 공평하게 다루고 있기 때문에 양자의 입장이 다같이 합리적이고 타당한 것으로 나타나 있다. 장군은 하사관과 자기와의 대립관계를 이렇게 설명한다.

...we are two articulations, self-elected possibly, anyway elected, anyway postulated, not so much to defend as to test two inimical conditions which, through no fault of ours but through the simple paucity and restrictions of the arena where they meet, must contend and—one of them—perish: I champion of this mundane earth which, whether I like it or not, is and to which I did not ask to come, yet since I am here, not only must stop but intend to stop during my allotted while; you champion of an esoteric realm of man's baseless hopes and his infinite capacity—no: passion—for unfact. No, they are not inimical really, there is no contest actually; they can even exist side by side together in this one restricted arena, and could and would, had yours not interfered with mine.²³⁾

23) William Faulkner, *A Fable*(Signet Book, 1968), p.308.

포오코너는 노벨상 수상 연설을 연상케 하는 연설에서 장군은 하사관이나 다름없이 그도 인간을 신뢰하며 인간은 비단 건디어 낼 뿐 아니라 승리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그러나 그의 인간 신뢰는 하사관의 경우와는 달리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 그는 하사관에게 “I believe in man within his capacities and limitations.”라고 말한다. 달리 말하면 그는 인간을 신뢰하되 인간의 속성에는 악의 요인이 내포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는 말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장군은 강력한 질서와 위법자에 대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장군은 통제를 옹호하고 통제가 혼란보다는 낫다고 믿기 때문에 심지어 자기 아들의 처형을 명령할 정도로 엄한 군법을 고수한다. 그는 하사관이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인간이 자유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는 생각지 않는다.

장군은 자기의 주장을 하사관에게 납득시키기 위하여 軍이 사전에 반란에 대한 정보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를 진압할 수도 있었음을 지적한다. 또한 그는 하사관의 친 동지간이고 같은 패거리인 Polchek에게 은전 30량을 지불하여 반란의 사전 정보를 얻어냈다고 폭로한다. 이 배반 행위가 바로 인간의 악의 가능성을 입증하며 그렇기 때문에 인간을 인간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통제가 불가피하다고 역설한다. 또한 장군은 하사관에게 그가 군중을 위해서 희생을 하지만 군중은 이제는 그를 반역자라고 비난하고 있음을 지적한다. 장군에 의하면 그들은 하사관이 간혀있는 감방의 “벽돌담을 허물거나” “문짝을 들쭉에서 때낼”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은 하사관의 평화와 동포애에 대한 그들의 이해력이 없기 때문이라고 한다.

장군의 주장에 대하여 하사관은 인간의 속성에 대한 또 다른 견해를 피력한다. 그는 인간의 한계를 드러내는 Polchek의 배반을 부인할 수는 없지만 인간에게 내재하는 선과 자기 희생의 정신을 확신한다고 말한다. 그는 “There are still ten”이라는 말로써 장군의 주장에 반론을 제기하며 Polchek은 그를 배반했고 Pierre Bouc는 그를 알고 있었다는 사실을 부인하지만 다른 열 명의 추종자들은 여전히 그에게 충성스러웠고, 감옥에 같이 갔으며, 그의 사후에는 틀림없이 그의 메시지를 군부내에 널리 알릴 것이라고 답한다. “십분 후엔 열이 아니라 백이 될 것이고, 열 시간 후엔 천이 아니라 만이 될 것이며, 열흘 후엔……”라고 그는 말을 계속한다.

육군 형무소의 한 가운데 위치한 감방에 자리잡은 하사관은 개인의 자유와 사랑의 힘의 상징이 된다. 거듭 그는 인류의 동포애에 대한 신념을 천명하며 인간의 본연적 동질성보다는 민족적 차이점을 강조함으로써 인간 상호간을 적대관계로 유도하는 민족적 장벽을 타파해야 된다고 주장한다. 그는 또한 “인간의 기억에서 단 한 마디의 말을 지워버리기만 하면” 모든 전쟁은 끝나고 말 것임을 알고 있다. 그 한마디 말은 “조국”이다. 그토록 합리적으로 변호하는 제도의 산물은 결국 폭력과 억압이 난무하는 황무지인 것이다. 시체가 널려있는 황야와 군민 모두의 실망에 찬 얼굴들은 장군의 합리주의와 실용주의로는 인간을 구원할

수 없다는 하사관의 신념을 확인시킨다. 권력과 권위와 통제가 불가결하다는 장군이 인간관은 사랑과 자유에 근거한 인간관으로 조절해야 하는 것이다. 통제는 본래 무질서와 폭력을 제거할 목적이었으나 무질서와 폭력의 원인이 될 정도에까지 도를 넘을 수도 있다. 그 결과 강압적 사회가 형성되고 그 태두리 안에서는 인간은 순응하든지 아니면 죽을 수밖에 없다.

군인은 육체적인 자유도 정신적인 자유도 없다. 그들은 바로 그들이 판 참호 속에 갇힌 포로들이다. 그들에겐 도덕적 판단이 허용되지 않고 제도가 마련한 규칙에 따라 무조건 모든 명령에 기계적으로 복종할 것을 강요당한다. 하사관의 반란은 수십만의 인민이 복종 여부에 불구하고 죽을 수 밖에 없게 되었던 질박한 상황에서 시작된다. “조국”이 강요하는데 따라 참호 속에 처박힌 그들은, 전진하기 위하여 참호를 나서면 “적”의 손에 의해서 죽음을 각오해야 하고, 전진을 거부하면 아군의 총살대의 손에 의해서 죽게 되는 역설적인 처지에 빠진다.

하사관은 장군의 주장을 전적으로 논박할 수는 없지만, 악몽같은 현실은 바로 그러한 주장의 소산임을 안다. 전쟁이 한창 진행될 때 독일이 장교 한 사람이 프랑스로 넘어와 연합군 지도자들과 반란의 수습책을 모의한다. 이들 장교들에게 있어서는 적은 독일인도 프랑스인도 영국인도 아니다. 적은, 전쟁을 종식시킬 것을 계획함으로써 軍에 도전하는 고통받는 인류인 셈이다. 양측 장교들은 다시 전쟁을 시작하여 “규칙에 따라” 전쟁을 끝내고자 한다. 단순한 평화만으로는 안된다. 그들은 규칙에 따른 평화가 필요하다. 독일인 장교를 프랑스로 태워가라는 명령에 복종한 젊은 독일인 조종사는 “비행기를 적의 후방에 착륙시켰다”는 이유로 착륙 즉시 처형당한다. 이 논리적이고 통제적인 광기에 대한 하사관의 해결책은 그가 합리성을 감정과 사랑으로써, 세속적인 실용주의를 희망과 이상주의로, 전쟁을 평화로, 통제를 육체적 자유와 자유스런 도덕적 판단력으로써 대치시키고자 하는 시도에 나타난다. 그는 그의 동료들을 그들 자신으로부터 구출하고, 그들을 참호의 “지옥”으로부터 해방시키고자 시도하느라고 자신의 목숨을 희생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는 포오크너에 있어서 근대인의 원형적 상징이 된다. 즉 동포의 고통을 덜어주려고 감히 조직 사회의 침해에 대항하여 자신의 자유와 생명을 잃는 근대인이 되는 것이다.

*Fable*의 구조를 이루는 질서와 권위 쪽의 일면과 자유와 동포애 쪽의 일면 사이의 대립관계는 결국 *Fable*에서도, 또는 그 이후의 포오크너의 작품에서도 해결되지 않는다. 그러나 비록 하사관이 투옥되고 처형되지만 그가 대변자로서 외치는 자유와 동포애의 원칙은, 그리스도의 정신이 그가 십자가에 못박혀 죽은 후에도 살아남듯이, 그의 추종자의 정신 속에, 그리고 그의 전설 속에 길이 살아남는다. Sutterfield 목사가 말했듯이 “우리가 죽일 수 있는 것은 사람의 고기덩어리 뿐이다” “우리는 그의 소리는 죽이지 못한다” 장군은 이것을 알고 있으며 당장의 위협을 피하기 위하여 하사관을 죽이는 것이 아이러니컬하게도 하

사관이 보여주는 정신을 영원하게 만든다는 결과가 된다고 하며 이렇게 말한다. “내일 아침 그의 목숨을 빼앗음으로써, 그는 헛되이 살지 않았고, 헛되이 죽는 것만도 아니라는 사실을 영원히 남겨 놓을 것이다.”

하사관과 장군으로서 상징되는 이 상반된 힘의 대결은 인간조건의 영원한 양상이라는 포오크너의 인간관은 이 소설의 끝 장면에서 더욱 선명해 진다.

(the Arch) lifted toward the gray and grieving sky, invincible and impervious, to endure forever not because it was stone nor even because of its rhythm and symmetry but because of its symbolism, crowning the city; on the marble floor, exactly beneath the Arch's soaring center, the small perpetual flame burned above the eternal sleep of the nameless bones brought down five years ago from the Vurdun battlefield....²⁴⁾

이 두 사람이 대표하는 원칙은 서로 영원한 대립 관계를 지속할 것이다. 영원한 불길로 상징되는 인간의 자유의 갈망은 사회가 강요하는 제약과 인제나 상충하기 때문에 인간의 고통은 불가피한 것으로 생각된다. 이상적으로 말하면, 이 두 원칙이 평화스럽게 공존할 수도 있을 것이고, 사회가 인간의 선성과 악성을 모두 공인하도록 이루어 질 수도 있을 것이다. Sutterfield 목사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Evil is a part of man, evil and sin and cowardice, the same as repentance and being. You got to believe in all of them, or believe in none of them. Believe that man is capable of all of them, or he ain't capable of none.²⁵⁾

하사관이나 장군의 인간관은 그 어느 쪽도 인간성의 양면을 동시에 고려하고 있지 않다. 그 어느 쪽도 그 나름대로 불완전하고, 따라서 그 어느 쪽도 그것만으로는 인간 사회에 대하여 어떤 문제도 해소시킬 수는 없다. 작품의 어떤 곳에선 장군이 포오크너의 구원자로 또 어떤 곳에선 사탄으로서 묘사되어 있으며 마찬가지로 하사관이 때로는 구원자로, 때로는 반역자로, 때로는 무정부주의자로 각각 다르게 묘사되어 있다. 두 사람은 다같이 위대한 선의 요소와 함께 악의 요소를 지니고 있다. 필요한 것은 하사관의 이복 누이이고 대모인 Marya가 장군에게 말한 두 가지 견해의 균형있는 조절이다.

You see? You and he together to be one in the saving of France, he in his humble place and you in your high and matchless one and victory itself would be that day when at last you would see one another face to face, he rankless still save for the proven bravery and constancy and devotion which the medal you would fasten to his breast would symbolize and affirm.²⁶⁾

24) William Faulkner, *A Fable*, p. 379.

25) William Faulkner, *A Fable*, p. 189.

26) William Faulkner, *A Fable*, p. 268.

불행히도 장군과 하사관과의 평화로운 협조의 전망은 실현되지 않는다. 그것은 하사관이 장군이 신봉하는 질서에 대한 위협적인 존재가 되지 않고서는 그의 천성이 요구하는 그런 자유를 성취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들이 내세우는 원칙은 다같이 정당하고 필요하면서도 타협될 수 없기 때문에 포오크너가 제시하는 인간 상황은 비극적이다. 개인은 자유를 요구할 것이고, 사회는 그 자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개인의 자유를 제한할 것이다. 인간 세계는 이 두 가지 원칙이 필연적으로 서로 갈등하도록 만들어져 있다. 이 갈등의 해소가 가능하다 해도 거기에 이르기까지는 고통과 비탄이 수반되기 마련이다.